

NET WORK



NET WORK 협회·회원사

자강산업(주) 신입회원 가입
 (사)한국포장협회 사무국 이전
 (사)한국포장협회 코리아팩2006 참가신청 접수

NET WORK 정책기관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개원
 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추진
 식약청 PBSA수지 기준·규격 신설
 산자부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NET WORK 유관단체

한국포장기계협회 창립11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중량물 포장설계 실무 강습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 개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NET WORK 업계동정

이녹스, 반도체 패키징용 필름 개발
 한진그룹 중국물류시장 진출
 화장품업계 트렌드 맞춘 용기 디자인 개발
 영해산업 포장용 칸막이 특허출원

자강산업(주)

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연포장 업체들과 win-win 기대



민남규

자강산업(주) 대표이사

BOPP필름 생산업체인 자강산업(주)(대표이사 민남규)이 지난 달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사로 가입했다.

민남규 대표이사는 “포장협회에 가입을 승인해 주신 김신창 회장님을 비롯해 협회 내 여러 임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1983년 3월 대우 PLASTIC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 된 자강산업(주)은 1988년 충북 옥천에 제2공장을 준공하고 96년 1월 현재의 자강산업(주)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발전해 왔다. 96년 경기도 안성에 제3공장을 준공하며 수출사업에만 국한해 온 자강산업(주)은 2001년도에 충남 당진에 있는 대일화학공장을 인수, BOPP 필름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2004년 경기도 의왕시에 금형공장을 설립한 이후 그해 7월에 광주시 광산구 우선동 하남공단으로 본사를 이전, 현재 광주, 옥천, 의왕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에서 B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1985년 2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데 이어 '95 경기도 100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삼성전자(주) '95 우수협력회사 우수상, '96 우수협력회사 제안부문 최우수상, 1997년 제2회 경기 중소기업 대상(생산성향상 부문), 1998년 제10회 중소기업 전진대회 중소기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ISO 9002 품질 시스템, 100PPM 품질 인증 등을 획득, 품질과 신뢰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자강산업 관계자는 “근래 1~2년 사이에 원료가의 급등, 중국산 저가의 OPP 필름수입 문제, 국내 수급밸런스 파괴로 인한 동종업계간의 치열한 경쟁, 원가부담 등 필름 업계를 둘러싼 사업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포장협회에 가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포장업계의 이익을 위한 협회 차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내적으로는 OPP 필름 원단생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포장협회 내에 필름수요처인 연포장회원사들과도 양보와 타협으로 WIN-WIN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 ▶ 주소 :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466-12번지
- ▶ 전화 : 041-353-6801 ▶ 팩스 : 041-353-6805
- ▶ 생산품목 : BOPP 필름

(사)한국포장협회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실시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1주간 계획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가 주관하는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이 이번 달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1주간 실시된다. 협회는 2002년 정부(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구축사업' 중 '포장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안,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장단기 포장기술교육 14개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1차년도에 개발된 장기통신교육 '포장기술관리사'를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협회는 국내의 낙후된 포장기술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난 3기까지 3백여명을 배출했으며 향후 연간 1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제3기에 비해 수강료를 일부 인상 조정, 일반 포장관련 기업 종사자 및 개인의 경우 25만원이며,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는 20만원이다. 또한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12만원이며, 수강인원은 1백명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자들에게는 포장기술관리사증이 수여되는 등 실무포장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한국포장협회는 포장기술관리사들이 향후 국내 포장산업의 취업, 이직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전화 2026-8655/9 담당 김은혜)로 하면 된다.

교육 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05. 10. 24 ~ 29	• 포장개요 • 지류포장	05. 10. 24	05. 11. 5
제 2 주	05. 10. 31 ~ 11. 5	• 플라스틱 포장재	05. 10. 31	05. 11. 12
제 3 주	05. 11. 7 ~ 12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05. 11. 7	05. 11. 19
제 4 주	05. 11. 14 ~ 19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05. 11. 14	05. 11. 26
제 5 주	05. 11. 21 ~ 26	• 방수, 방습, 방청, 완충, 중량물, 포장기법	05. 11. 21	05. 12. 3
제 6 주	05. 11. 28 ~ 12. 3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05. 11. 28	05. 12. 10
제 7 주	05. 12. 5 ~ 10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05. 12. 5	05. 12. 17
제 8 주	05. 12. 12 ~ 17	• 포장기계	05. 12. 12	05. 12. 24
제 9 주	05. 12. 19 ~ 24	• 포장과 환경	05. 12. 19	05. 12. 31
제10주	05. 12. 26 ~ 31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05. 12. 26	06. 1. 7
제11주	06. 1. 2 ~ 7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06. 1. 2	06. 1. 14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06. 1. 9	06. 1. 21
최종심의				06. 1. 31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06. 2. 3
수강자 소집교육 및 관리사증 수료		• 오전 : 오리엔테이션 • 오후 : 관리사증 수료		06. 2. 10

(사)한국포장협회
포장시험실 설치, 사무국 이전
 이전 기념식 개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가 사무국을 이전, 이달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포장협회는 새로운 사무국에 오랜 숙원이었던 포장시험실을 설치, 향후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시험을 통해 회원사 및 포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업계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회의실을 마련, 협회 업무의 효율화를 꾀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사무국을 이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사와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 11일, 정기이사회와 함께 이전 기념식을 갖고 도약의 포부를 다질 계획이다.

문의 전화 : 02-2026-8655~9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 2006 참가신청 접수
 내년 3월 21일부터 4일간 개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 한국포장기계협회, 코트라, (사)한국포장협회, 일간포장,

(주)경연전람 주최로 개최되는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이 2006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5월에 개최됐던 2005년 전시회는 세계 27개국 4백5개의 참가업체와 2만3천명의 국내외 바이어를 성공적으로 유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유일의 포장전시회인 KOREA PACK 전시회는 2003,4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유망전시회에 연속 채택됐으며, 국내 무역전시회 인증(AKEI) 획득을 통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문전시회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포장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산업과의 비즈니스 환경 제고를 위해 지난 전시회부터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5)과 동시 개최, 관련산업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참가사들의 호평을 얻은 바 있다.

또한 KOREA PACK 전시사무국은 내년부터 국제계약 화장품 제조 산업전(COPHEX 2006)과 동시개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제약 산업과 화장품산업을 대표할 COPHEX 2006 전시회의 동시 개최를 통해 KOREA PACK 참가사들의 상담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시사무국은 밝혔다.

KOREA PACK 전시회는 포장용기, 포장(원)재료, 포장재 생산기계를 비롯 제품의 생산에서 물류까지의 포장 전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이 대거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로 내년 3월에 개최되는 KOREA PACK 2006 전시회는 세계 30

정책기관

개국 5백개사, 1천2백 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사)한국포장협회 02-2026-8655~9
(주)경연전람 김길수 팀장 02-785-4771

동화정밀기기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와 양대 축을 이뤄 창원 CECO가 기계류 마케팅장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자원부
국제자동화정밀기기 창원전 개최
내년도 창원서 추진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와 경남도,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05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창원전'이 지난 달 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관 행사로 개막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14개국 2백33개 업체가 9백28개 품목 6천85점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품된 기계류는 FA기기·공정제어시스템과 금속가공기계·공구·포장기기·물류제어시스템, 유공압기기·펌프, 제어계측·시험검사기기, 한국기계벤처산업 등 6개 전문분야와 해외국가관(대만)을 구분 전시했다.

전시면적은 4천2백93㎡, 4백77개 부스로 구성됐으며 국제FA기기·공정제어시스템전과 국제금속가공기계·공구전만 3백27개 부스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이번 행사기간 외국인 약 3천명을 포함해 5만명 가량이 참관하고 6억달러 상당을 상담, 5천만달러 가량을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측은 또 내년 5월에도 창원에서 국제자

환경부
프탈레이트 사용규제 검토
검토위원회 구성, 방향 설정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비닐수지 제조시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용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된 특정유해물질의 사용 및 용도를 규제할 수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의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사용용도 제한, 수입, 판매 등에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품을 통한 인체노출 및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개 PVC 및 비닐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돼 탄력성, 내열성, 광택성, 내약품성을 높여주며 플라스틱, 화장품, 어린이 장난감, 식품포장 필름 등에 첨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땀냄새 제거제인 '테오드란트'에서 이 물질이 검출돼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중에 취급제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프탈레이트 중 DEHP, BBP, DBP 성분에 대해 어린이 장난감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제품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DEHP, DBP를 식품용기, 장난감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개원
(사)환경마크협회 모태 출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선도할 전문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지난 달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청사에서 개원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박선숙 차관을 비롯, 광결호·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역대 환경마크 협회장, 이상영 진흥원장, 친환경생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진흥원 임·직원 등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을 위해 지난 19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했으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부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을 제정(’04.12)해 금년 7월부

터 시행 중에 있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환경마크협회를 모태로 설립된 법정법인(재단)으로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정부·민간위원 등 10명으로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 진흥원의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심의 등 개원을 준비해 왔다.

진흥원은 원장 소속하에 3개국(경영기획·제품평가·구매진흥) 10개팀으로 구성, 친환경상품 인증·보급 촉진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되며 ▲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상품 평가 업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친환경상품 정보망 구축, 공공기관 순회교육과 구매촉진대회를 비롯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상품 인증확대 및 친환경설계기법(에코디자인) 보급·확산, 친환경건축자재 공급망 구축,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환경정보망 운영 업무를 역점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취임한 이상영 초대원장은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과 이사,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친환경상품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원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항만물류 RFID 국제표준안 오류
 ETRI · 국내업체도 기술개발 일정 차질

미국 정부가 각국 해운선사에 자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전자씰(e-seal)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기에 사용되는 4백33MHz 대역 전파식별(RFID) 기술의 국제표준안에 오류가 발견돼 관련 응용표준안 마련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를 틈타 글로벌 기업인 모토로라가 이 시장에 뛰어들 조짐이어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내 기업들이 향후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컨테이너 자동인식 및 컨테이너 포장 관련 전문가 회의(TC 104/SC4)에서 모토로라가 이 분야 주도업체인 사비테크놀로지에게 제안한 433MHz용 RFID 기술을 근간으로 한 ISO 18000-7 표준안의 오류를 확인해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ISO 참여국들의 표준화 관계자들이 이 같은 오류를 확인, 이번달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표원 물류표준과 최석우 연구관은 “사비테크놀로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ISO 18000-7을 기반으로 모토로라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기간 상호운영성과 정확성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해 지난 5월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

재의 ISO 18000-7은 오류인식 체계상 6만5천개 중 1건의 오류를 파악하고 있으나, 상용수준은 1백만개 중 1건을 인식하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표준은 선택사항이 많아 제품 개발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상호운영성이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 독일 베를린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이에 대한 보완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고 최 연구관은 밝혔다.

현재 항만물류에서 사용되는 4백33MHz RFID 기술은 ISO 18000-7에 맞춰 응용표준을 만들도록 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ETRI와 관련업체들이 이 표준안에 따라 4백33MHz 제품을 개발 중이어서 기술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도 최근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새 표준안에 따라 제품을 다시 개발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과정에서 사비테크놀로지가 독점하고 있는 433MHz RFID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모토로라가 견제세력으로 등장, 추후 판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토로라는 이미 433MHz RFID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으며 이번 표준안의 오류사건을 계기로 사비테크놀로지를 견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33MHz RFID는 미국 정부가 자국행 모든 컨테이너에 사실상 의무부착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쳐지며, 이에 ETRI와 일부 업체들도 기술 국산화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편 전자씰 표준화에 참여하는 세계항만물류협회(WSC)는 최근 고가인 전자씰을 강제 적용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각국 항만선사에 대한 본격적인 전자철 의무적용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과 모든 성분명이 표시된다. 또 프탈레이트, 사람의 태반 등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 용기와 포장에 나타내도록 한 현행 규정은 앞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 성분만을 표시토록 한 현행 성분표시 규정도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전(全)성분표시제'로 확대된다.

이밖에 디부틸프탈레이트(DB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은 생식독성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며 사람의 태반 유래 물질은 원료에 대한 규격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다.

케토코나졸, 메탄올, 콜타르, 파라페닐렌디아

민 등도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며 발암 가능성이 염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량을 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PBSA 수지 기준·규격 신설
11월 12일까지 의견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재질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신설하는 내용을 입안예고했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합성수지이다.

현재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 받아 품질관리를 유통 판매했으나, 고시된 후에는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따르면 된다.

입안예고(안)이 고시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2일 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한국포장기계협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포장기계대상 시상식 가져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이번 달 13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협회는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제12차 총회, 제7회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 제6회포장기계대상 시상식을 동시 개최, 포장기계인 축제의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치러지는 제6회 포장기계대상 시상식에는 기술개발 부문으로 예비 성형 진공포장기를 개발한 최포인 코마스 대표와 고밀도 분체충전탈기 장치를 개발한 변호연 세진테크 생산기술 이사가 중기청 장상을 받게 됐고, 수출판매 부문에서는 이원우 세종과마텍 대표가 1년간 1천만 불의 수출을 달성한 경영이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장 특별상을 받게 됐다. 한편 경영관리 부문과 품질관리 부문은 올해 수상자가 없다.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청 김성진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중량물 포장설계 실무 강습회 개최

포장기술 발전 기대

한국중량물포장협회(회장 임경빈)가 2005년도 지도교육 사업의 하나로 중량물 포장실무 과정 강습회를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 달 27일 창원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강습회에 이어, 이달 6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중부지역 강습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중량물포장협회 김형빈 부회장의 “나무상자 설계 실무(1)”와 한국포장전략연구소 남병화 소장의 “포장 기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협회 회원사는 3만원, 비회원사는 5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은 무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강습회는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대학의 포장학과 학생도 참가가 가능하다”며 “한국 중량물 포장업계의 포장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031) 217-9453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개최

제지업종 대책반 활동 계획 밝혀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상문)는 지난 달 8일 무림제지 연수실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제지업계 세미나를 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11년만인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와 에너지소비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국제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산업계의 사전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권오근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박기원 사무관이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너지·산업부문 주요 대책을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박영구 팀장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해 강연했으며 유한김벌리 친환경신소재개발팀 박직환 부장이 기후변화협약관련 산업계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개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 관계자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매 3년마다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8개 산업부문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제조업종 대책반에서는 전 제지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점진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

주요국 검역 요건 밝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이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한국파렛트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가 지난 달 6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미국, EU, 호주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리나라 수출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 개최

요건 △ 우리나라 수입목재포장재의 검역요건 △ 목재포장재 수출입절차 및 주의사항 △ 목재포장재 대체용기 소개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각 국의 검역 요건을 파악,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제17회 인쇄문화의 날 개최

인쇄문화대상 시상식 함께 열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달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7회 인쇄문화의 날 및 제21회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홍우동 회장은 “인쇄문화의 날은 유공자에 대한 각종 포상과 함께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전국 1백만 인쇄가족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인쇄업계는 내수경기 악화와 물량난 및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 대한인쇄문화협회 제17회 인쇄문화의 날 개최

2007년부터 단체수계약제도마저 폐지돼 업계의 혼란과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인쇄인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더불어 협회와 인쇄연합회, 서울인쇄조합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극복과 수출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1회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부문 이광옥 (주)홍보컴 대표이사, 기술부문 고광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 특별부문 이창석 목활자무형문화재, 진흥부문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 등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및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장과 인쇄문화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05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삼영물류(주),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이병성)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2005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류표준화 우수기업에게 시상하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 삼영물류(주) 등이 산업자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05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 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

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삼영물류(주)는 80여 개 화주업체의 공동물류를 통해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물류표준화 확산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파렛트 유니트로드부문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에 선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원장 김혜원)이 수여한 분야별수상에는 파렛트 분야에 삼영물류 등 4개 업체, 컨테이너 분야에 이 건산업(주) 등 5개 업체, 공로상에 한국파

렛트폴(주)서병륜 대표가 선정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우수업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하여 물류효율화와 일관수송시스템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류표준설비인증 제도는 일관수송시스템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파렛트 표준화율 30%를 40%로 향상되는 2007년에는 연간 2천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 APLF 회장 연임

아시아 물류표준화 확립 노력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이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 회장으로 재 추대됐다.

서병륜 회장은 지난 달 16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PLF(Asia-Pacific Logistics Federation) 제 5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재 추대됨으로써, 2007년 9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됐다.

서회장은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새로운 재임 기간 동안 회원국의 확대와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이 맡게 된 APLF 회장직은 2년 임기로, 지난 2003년 서울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그 직을 이어받게 돼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역할과 그 위상을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 APLF(Asia-Pacific Logistics Federation) 제 5차 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해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한 각국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2006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한다.

또, APLF는 회원국간 인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국제 물류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인터넷 교육과정을 2007년 상반기에 개설, 회원국의 물류관련자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면 국제 물류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PLF는 지난 1995년 일본 동경에서 창설돼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9개국 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APLF 제 6차 총회는 2007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노동위원회 공성진 국회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집행위원장 윤준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달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생산자, 시민단체 등에서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표했다.

박일호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이 발표한 ‘필름류 포장재 관리 현황 및 대책’을 살펴보면 현재 필름류 포장재 총 생산량은 약 1백만톤이며 EPR 대상은 17만4천톤(17%)으로 이중 11%인 11만3천톤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호 과장은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의 문제점에 대해 ▲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상의 문제 ▲ 재활용 비용 지원상의 문제 ▲ 재활용 제품의 경제성 부족 ▲ EPR 대상 확대 적용시 품목 선정 및 확대 시행 시기 등의 문제와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기반시설 미약으로 재활용 확대가 곤란한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박 과장은 “필름류 포장재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 분리 배출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 ▲ 비대상 필름류 재활용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 ▲ 선진 외국사례 조사 및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 재활용 제품의 경제성 확보, 기술개발, 대량 사용처 확보 등 추이에 따라 EPR 대상 확대 품목 결정 및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신필식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이사는 “동일한 포장재라면 어떤 상품을 포장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포장폐기물을 발생시켰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동일한 포장폐기물에 대한 특정 5개 업종(음식료·세제류·화장품·의약품 제조수입업·농수축산물 판매수입업)의 상품 포장재에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업종간 형평성을 심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 이사는 “EPR 대상 업종을 필름류 포장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을 기준으로 확대해 업종간의 형평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시민 입장에서 발표한 홍수열 쓰시협·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43.5%



▲ 이재용 환경부 장관



▲ 자원순환사회연대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만이 필름류 포장재가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5.7%만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필름류 포장재 폐기물만 따로 배출하고 있다고 답변, 분리배출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름류 포장재 폐기물 전용 수거함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혼합수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에 필름류 포장재 품목이 추가되면서 선별이 더욱 어렵고 선별해 놓은 필름류 포장재를 받아주는 재활용 업체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성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범위와 관련하여 80% 이상이 의무 대상이 아닌 필름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Free Rider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이 낮아 재활용비용지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며 필름류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초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민간업체 등 재활용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필름류 생산량, 업종별 사용량 등의 현황조사와 재활용 경제성 분석, 독일, 일본 등 재활용 실태 및 기술조사 후 국내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EPR 대상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녹스
반도체 패키징용 필름 개발
국산화, 2백50억 매출 기대

이녹스(대표 장철규, 장경호)가 패키징 공정에서 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을 접착시켜 주는 LOC(lead on chip) 테이프와 LLT(lead lock tape), 디스플레이 구동드라이브의 패키징에 쓰이는 TAB(tape automated bonding) 필름 등을 잇달아 국산화, 국내 시장에 공급하면서 외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기능성 소재들이나 지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이다. 장철규 사장은 “우리가 개발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모두 국내 최초 개발이며 수입 대체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녹스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리드프레임과 칩을 접착시키는데 쓰이는 LoC를 국내 최초로 개발, 하이닉스에 공급 중이다. 이 제품은 절연과 접착 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액상 제품에 비해 신뢰성이 좋은 필름 형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시장 규모는 연간 5백억~6백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녹스의 개발 이전엔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이 회사는 두께가 얇고 접속 핀이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LLT도 개발, 수입 대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일본 도모에가와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이녹스와 도레이세한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또 일본 도모에가와·도레이 등이 주로 생산하는 PDP 구동드라이버의 패키징 필름을 개발, 3~5년 내에 국내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이 회사는 연성동박적층필름 위주인 매출 구조를 반도체용 기능성 필름과 디스플레이 소재 등으로 다변화, 올해 2백5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보령제약(주)
용각산 리뉴얼
용기 소형화, 휴대편의성 살려

신세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새 용각산이 나왔다.

보령제약(주)(대표이사 김상린)은 지난 달 20일 분말형 진해거담제 용각산에 강한 청량감을 더한 ‘용각산쿨 민트향’을 출시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기존 용각산의 높은 인지도와 제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셉인 ‘성대보호기능’을 강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용각산쿨을 1백억대 제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그란 은색에 담겨있던 포장도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 다양화 했다. 기존 제품보다 용기 크기를 작게 해 휴대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원한 느낌을 강조하는 파란색을 채택했다. 또 휴대가 간편한 1회용 과립형 스틱포장으로 가루약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도 없다.

보령제약은 용각산쿨 민트향 출시를 바탕으로



▲ 보령제약(주) 용각산 리뉴얼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각산의 주 소비층인 선생님, 상담원, 음악가 등 평소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건강캠페인'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한 인지도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DHL코리아,
국내 인공위성 수출 운송 담당
 안전운송 기대

종합물류기업 DHL코리아는 벤처기업 쉘트랙아이가 개발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공위성 '라작셋 (RazakSAT)'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운송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DHL에 따르면 이번 인공위성은 운송 시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포장에서 운반까지 최대의 안전과 고도의 전문 운송 기술이 요구된다.

인공위성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운송된 후, 당일 직항기를 이용하여 말레이시아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예정이다.

먼저 인공위성은 특수 제작된 철제 컨테이너(180×180×180cm)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된다. 인공위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다시 무진동 특수 트럭 위에 옮겨지면 인공 위성 컨테이너를 탑재한 DHL의 무진동 특수 트럭은 인천공항까지 총 2백50km에 이르는 거리를 4시간 동안 달려간다.

한편, 쉘트랙아이의 최순달 박사는 "라작셋은 국내 기술로 개발돼 수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수출 운송을 맡은 DHL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물류업체
동북아 물류흐름 지원센터 설립
 오는 2007년 완공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최대 5층,10만평 규모로 한·중·일 3국의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물류센터가 오는 2007년까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동북아 물류 공동번영과 우리 항만의 성장전략'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물류흐름을 지원키 위해 가공 분류 포장 등 부가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건립기로 했다.

물류센터 건립은 한국은 가공·포장, 중국 보관·분류,일본 유통·판매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 한국은 항만 부가가치 창출,중국은 상품이

치 제고 일본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규모는 5만평의 부지에 1층, 2만평 규모로 건립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복층화해 최대 5층, 10만평까지 확충키로했다.

이를 위해 올 해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에 착공, 오는 2007년까지 완공해 운영 할 계획이다.

센터 건립 및 시설운영은 민간 또는 제3센터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의 성장전략은 또 한·중 항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소형선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적물량 등 신규 화물창출을 위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피더망 보완대책을 올해말까지 수립해 추진키로 하고 물동량이 적은 피더망은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초기 일정기간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항과 항만 연계수송망 확충을 위해 부산·광양항과 연계수송을 위한 남부권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진그룹
중국 물류시장 본격 진출
 천진 등 주요도시 거점 확보

한진그룹이 중국 물류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진그룹은 계열사 (주)한진이 중국 칭다오(靑島)에 육상물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상하이(上海)·다롄(大連)·웨이하이(威海) 등 3곳에 영업소를 낸

데 이어 현지법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내 명칭은 '칭다오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로 (주)한진이 75%, 칭다오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가 2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총 자본금은 2백44만 달러(약 2천만 위안) 규모다.

(주)한진은 이 법인을 중심으로 중국 내 종합 물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진은 이 밖에도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중국 민간항공사인 아오카이 항공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 물류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한진 관계자는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물류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며 "이번 현지법인 설립을 발판으로 향후 3년 내에 천진(天津) 등 10여 개 지역에 지점을 설립하는 등 앞으로 중국 물류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칭다오에 있는 해천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는 (주)한진의 중국 진출은 첨단 선진 물류서비스를 중국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물류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며 "중국사업의 확대는 한진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주)한진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오너 형제의 기업으로 이미 9개의 중국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한진해운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한진해운도 지난달 중국에서 종합 물류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천진, 다롄, 칭다오 등 주요 도시에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CJ GLS(주)
[미리보는 RFID물류센터] 시연회 개최
 RFID시스템 개발 완료

CJ GLS(주)(대표이사 박대용)는 지난 달 1일 '미리보는 RFID 물류센터' 시연회를 필동 소재 CJ인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성장동력개발사업' 중 물류부문인 '유비쿼터스 환경의 RFID 물류시스템 개발사업'으로 CJ GLS가 주관사가 돼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8년1월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시연회는 CJ GLS가 2004년 12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중간 결과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활용, 실제 물류현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미니모델을 만들어 시연했다.

미니모델 시연회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해 창고에서 상품의 입고고를 체크하는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실제크기의 10분의 1크기로 제작된 파렛트(적재판)에 RFID칩이 부착된 상품 박스를 올려 입고게이트와 출고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상품 박스를 얹은 파렛트가 자동 컨베이어 위에서 RFID 센서가 부착된 게이트를 통과하자 게이트에 있는 센서가 박스에 붙어 있는 칩의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수량을 정확히 파악했



▲ CJ GLS(주) [미리보는 RFID물류센터] 시연회 개최

고 입고와 출고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시연된 RFID 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일일이 세어 입고와 출고 등의 검수를 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없었다는 것이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RFID 시스템을 물류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줄이고 제품 재고 및 검수 등에 정확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된다.

CJ GLS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전 물류현장에 도입될 경우 기존 물류비의 3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활용한 물류시스템 개선, 비즈니스모델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CJ GLS는 이번 중간발표 이후 올해 말까지 RFID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창고관리시스템, 주문관리시스템, 국제물류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미들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2008년까지는 RFID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각종 시스템 및 장비개발과 국제적 사용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RFID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08년 이후 RFID 기술을 산업계에 확산하고 시스템을 최적화 하며 관련 기술을 안정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RFID 프로젝트가 성공할 시 우리나라는 RFID 기술에 대

한 선점효과와 국제 표준 리더쉽 확보, 관련 기술 및 장비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컨소시엄에는 시스템 개발을 맡은 CJ SYSTEMS와 미들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ECO,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에 D&ST를 비롯 고려대, 유통물류진흥원 등 CJ GLS를 포함해 총 10개 기업과 학교 3곳, 연구소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CJ GLS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사로 각각의 회사의 기술개발을 조율하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RFID 응용시스템 개발,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맡고 있다.

화장품 업체
트렌드 맞춘 용기 디자인 개발 늘어
프리몰드 용기보다 새로운 제품 선호

더위가 한 풀 꺾이면서 화장품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는 가운데 화장품 용기 디자인, 개발 업체들도 디자인 트렌드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브랜드 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거의 없거나 리뉴얼 상태에 머물러 있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가을 및 겨울 상품들의 출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및 개발 업체들은 최근 화장품 및 용기의 트렌드는 10대와 30대 층에서는 섹시미와 보

업계동정

이시한 디자인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특히 30~40대는 부드러운 복고스타일이 강세를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웰빙 디자인과 웰빙 소재 즉 자연주의 디자인은 올 가을과 겨울에도 큰 변화없이 이어 나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프리몰드 용기를 선호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프리몰드 용기에 색과 인쇄 및 후가공을 덧붙여 리뉴얼한 제품들도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안산의 한 디자인 업체 총괄 팀장은 중소화장품 업체를 중심으로 용기 디자인을 의뢰하는 일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하며 8월까지만 해도 단순한 프리몰드 디자인의 용기를 구하려는 문의가 있어왔지만 지난 달 들어 새로운 개발과 디자인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을 두고 프리몰드 용기가 단가는 싸지만 고객들의 시선을 끌지는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업체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름대로 분석하며 최근들어서는 고객 연령대에 맞춘 디자인 의뢰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원근교의 한 디자인 개발 업체는 30~40대 여성용 고보습 화장품 용기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 용기는 단순한 프리몰드의 변형이 아닌 기능과 디자인이 함께 한 작품 수준의 용기라고 귀띔했다. 이 업체의 디자인 담당자는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에너지 제품의 용기도 새롭게 제작하려는 업체들도 있다고 전하며 조금 무리가 되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한 용기 개발 회사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 내놓을 마스크라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도 역시 국내와 해외의 트렌드에 맞춰 20대층을 겨냥한 섹시하고 보이시한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제품을 디자인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기간은 보름이 걸렸으며 고객들이 만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부자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디자인 및 용기 개발의 움직임을 두고 올 가을에는 보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이 있는 용기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와 같은 추세가 비단 화장품 용기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식음료는 물론 생활용기 전반에 걸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용기 디자인과 기능이 강조된 용기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은 고객들에게 어필하려는 업체들의 몸부림”이라고 평가하며 “화장품 업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지만 이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과업체

과자시장, 가을 새단장

파이류 등 주력제품 앞세운 분위기 쇄신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제과업체들이 얼굴마담이라 할 수 있는 간판급 주력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다. 제과시장 간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제품의 변신을 통해 불

황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새롭게 환기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리프्रेस 전략에서 선봉장은 파이류다.

초코파이류가 일시에 리프्रेस에 나선 것은 불황으로 인해 식사를 대응 할 수 있는 먹거리로 파이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워진 과자시장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과자 시장의 대표 제품인 '몽쉘' 과 '롯데초코파이' 는 최근 포장에서 느껴지는 식감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단층으로 표현된 파이의 조직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몽쉘' 은 고급성을 강조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배경으로 설정된 바이올린과 금색띠를 선명하고 밝게 조절하고, 로고의 크기와 위치를 안정적으로 배열했다. 또 초코파이는 배경에 유럽의 고풍스런 궁전 삽화를 그려 넣는 등 세련된 감각으로 살렸다. 또한 인기 상승 중인 '쫄득쫄득찰떡파이' 는 바탕색을 진하고 붉은 밤색으로 하고, 또 파이 일러스트에 변화를 줘 맛깔스럽게 보이도록 했다.

과자포장 같지 않은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로 눈길을 끌고 있는 프리미엄 녹차 쿠키 '첫눈에'



▲ 제과업체 과자시장, 가을 새단장

도 봄의 옅은 녹색의 녹차밭에서 가을빛이 가미된 황금색 초록빛으로 교체했고, 또 녹차 밭 배경 위에 형식을 구매 받지 않는 글씨체로 제품명을 설계, 차별성을 강조했다.

비수기에도 먹기 좋은 홈타입 빙과류도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 장수 제품이며 한입에 먹기 좋은 '셀렉션' 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기존의 사각형 라벨 대신 큰 물결무늬와 곡선미를 살린 부드러운 로고체로 리프्रेस하고, 홈타이프 아이스크림 '위즐' 도 라벨과 라인, 로고의 변화를 통해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설계했다.

해태제과는 최근 사각 초코파이 '오예스' 의 포장 컬러를 밝게 하고 로고와 리본을 심플하게 만들었다. 또 파이 사진을 맛깔스럽게 했다. '자유시간' 초코바는 바탕색을 밝은 노랑색으로 바꾸고 기존의 장식적 요소를 제거해 심플하게 꾸몄다. 또 장수제품인 아카시아껌은 신세대 여성들의 취향에 맞도록 핑크색 꽃 그림을 넣어 변화하는 소비층에 대응했다.

오리온의 '고소미' 도 최근 컬러를 가을색이 짙은 진노랑색으로 하고 인물캐릭터도 새롭게 바꿨다. 또 '도도한나초' 스낵은 신세대 감각에 맞춰 로고체, 캐릭터 등을 새롭게 설계했다.

또 크라운제과도 장수 제품인 '캐러멜콘과땅콩', 'C콘칩' 등 제품의 디자인을 리프्रेस했는데, '캐러멜콘과땅콩' 은 크게 벌인 입에 캐러멜콘과 땅콩을 쏟아 붓는 익살스런 모습의 디자인으로 재미성을 살렸고, 또 'C콘칩' 은 로고 앞에 영문자 C를 붙여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웨하스' 도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밖에 빙그레는 장수 제품인 '투게더' 아이스

업계동정

크림의 디자인을 원형 라벨에 로고를 넣어 시선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 올해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과자시장이 대표상품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 일신에 나서 전체 과자시장에 봄업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히아브하나(주)
증자리셉션 개최
물류운송시장 '안전' 책임

히아브하나(주)(대표이사 헤이키 란타)가 지난 달 14일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외자유치를

축하는 증자리셉션을 개최했다.

크레인 및 물류취급장비 제조업체인 히아브하나(주)는 스웨덴에 위치한 그룹본사 카고텍으로부터 40억원을 지원 받아 물류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금번 외자유치로 물류취급장비 생산라인을 증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3년 내에 기존의 물류취급장비 생산량을 3배 이상 끌어 올리고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 등으로 국내의 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할 전망이다.

더불어 물류취급장비의 안전과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물류운송차량의 사고감소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히아브하나 증자리셉션에는 충청북도 한범덕 부지지사, 주한 스웨덴 대사, 주한 핀란드



▲ 히아브하나(주) 증자리셉션 개최

대사, 건교부 물류혁신본부 이성권 본부장, 생활교통부 유덕상 본부장, 한국물류협회 회장단 등 물류업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범덕 부지사는 “립셉션 전일 충북 이원종 도지사가 히아브하나 청원본사를 방문했다”며 “외자 유치 증자로 인한 지원 사항이 있다면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해산업
포장용칸막이 특허출원
제품 생산성 향상 기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포장박스 업체 영해산업(대표 서홍철)이 조립비용이 없는 포장용 칸막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해산업이 고안한 포장용 칸막이는 박스에 병 또는 과일을 포장할 때 포장대상물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 원지 중앙 양측에 상하로 접히는 누름선을 형성하고, 누름선의 내측 끝부분에는 미싱칼선을 세로방향으로 형성하며 누름선의 사이에 칼선을 형성하게 된다.

칼선의 중간부분에 세로 방향으로 반꺾선을 형성, 원지를 누름선을 따라 상하로 접고 칼선부분이 벌어지도록 반꺾선 부분을 좌우방향으로 접어서 세로판과 가로판이 열십(十)자 모양의 단면을 이루도록 형성하게 된다.

이 포장용 칸막이는 박스에 병을 포장할 때 박스 내부에 자동화 장치를 이용해 여러개의 병을 모두 내장한 후 신속하게 포장용 칸막이를 접어

서 병 사이에 끼워넣음으로서 포장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포장지의 구조를 단순화해 제품 생산성이 향상되며 필요해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원하는 길이로 연장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심볼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보급형 모바일 컴퓨팅기기 출시
유통, 물류분야 효율성 극대화

기업용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업체인 심볼테크놀로지스 코리아(대표 최용석)는 유통, 물류분야에서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보급형 모바일 컴퓨팅제품인 'MC10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MC1000는 심볼이 기업모빌리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모바일 컴퓨터 제품군에 새로이 추가되는 보급형 제품으로, 바코드 스캐닝과 데이터 입력기능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고객들의 효율적인 데이터 입력 및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MC1000은 특히 현장작업자들의 편이를 고려해 큰키패드를 포함하는 인체 공학디자인설계 및 작고 가벼운 외형으로 제작됐으며, 데이터입력 및 저장을 위한 고품질의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 수작업을 대체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들은 재고점검 및 관리, 제품주문 및 운송확인 같은 데이터입력이 잦은 작업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MC1000은 탑재 메모리 및 무선

업계동정

성능의 손쉬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기업의 투자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MS 윈도우 CE 표준 이하에 시스템이 운영되어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기업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준다.

심볼은 이번 MC1000 제품이 한국과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제작된 만큼 한국어 완벽하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심볼의 모바일 컴퓨팅 기술력과 노하우가 접목된 제품이자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시장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볼코리아는 신제품인 MC1000이 가격 경쟁력과 함께 경쟁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물류 및 운송, 제조, 유통 및 도소매 업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최용석 사장은 “이번에 새로이 출시하는 심볼의 MC1000은 국내 물류 및 운송제조, 유통, 도,

소매시장 등 다양한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가격 부담없이 심볼의 모바일 컴퓨팅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심볼은 향후에도 파트너사와의 협력하에 MC1000을 비롯한 모바일 컴퓨팅 제품군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기업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선두업체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인스턴트 커피시장 진출 플라스틱 용기 포장, 냉장상태 유통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현지 음료업체와 손잡고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진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달 27일 일본 음료업체 산토리와 공동으로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를 출시했다.

이 커피는 빨대가 달린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냉장 상태로 유통된다.

스타벅스는 수 주안에 판매망을 일본 1만개 편의점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의 인스턴트 커피시장은 어림잡아 1백억 달러(10조원)이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미 북미시장에서 병이나 캔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제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프리미엄 냉장 커피를 선보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가격은 2백10엔(2천1백원)으로 동종 경쟁사 제품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 심볼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보급형 모바일 컴퓨팅기기 출시

신제품

한국야쿠르트

비락식혜 1.8l 출시 폴리프로필렌용기 사용

한국야쿠르트는 기존 비락식혜의 용량을 크게 늘린 '비락식혜 1.8l'를 선보였다.

방부제를 넣지 않고 레토르트 살균 처리된 이 제품은 고열에서 건딜 수 있고 산소 투과 억제층이 있는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사용, 내용물의 변질을 막고 맛의 보존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종가집 두부종가

'손두부' 출시 사각 트레이 필름 부착

종가집 두부종가가 수제 타입의 프리미엄급 포장두부 '손두부'를 새롭게 출시했다. 신제품 '손두부'는 사각 트레이에 필름을 부착하는 기존 포장두부의 디자인을 과감히 탈피, 투명 진공압착 포장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가 손두부의 투박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계식으로 만든 매끈한 기존 포장두부와는 달리, 멧돌에 갈아내어 손으로 만든 두부처럼 표면이 거칠고 투박해 씹는 느낌이 좋고 맛이 고소한 것이 특징이다.



(주)오토닉스

원주형 포토센서 BR시리즈 출시 검출 성능 향상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의 $\phi 18\text{mm}$ 원주형 포토센서 BR 시리즈가 3개군 12개 모델을 추가 출시하고, 전 모델 공통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을 채용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업계동정

원주형 포토센서 BR 시리즈는 기존 제품군에 더해 최대 20M까지 장거리 검출이 가능한 투과형 뿐만 아니라, 4백mm까지 검출이 가능해져 검출 폭을 넓힌 직접반사형 및 협소한 공간에서 정밀한 검출을 실현하는 협시계형 모델을 추가 출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1ms의 빠른 응답속도와 검출의 높은 신뢰성을 인정 받아온 BR시리즈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을 적용, 전 모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외부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동작을 방지해 더욱 높은 신뢰성 실현했다.



풀무원샘물

풀무원 워터라인 18.9ℓ 출시

손잡이가 부착된 삼각형 용기 특징

풀무원샘물(대표 서석원)은 '풀무원 워터라인'의 페트병에 이어 가정 및 사무실용 먹는 샘물 '풀무원 워터라인 18.9ℓ'를 새롭게 선보였다.

'풀무원 워터라인 18.9ℓ'는 국내 먹는 샘물 업계 최초로 손잡이가 부착된 삼각형 용기가 특징이며, '워터라인 전용 냉온수기'는 워터라인 병과 동일한 삼각형태의 빌트-인 가전으로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해 설계됐다.

또한 고풍택 재질의 세련된 디자인은 집안 및 사무실 인테리어에 맞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제품의 경우 운반 및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상 문제점 등 정수기에 비해 수요가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풀무원 워터라인'은 풀무원과 프랑스 네슬레워터스에서 공동 개발한 최첨단 병을 통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컬러와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가정 및 사무실용 프리미엄 먹는 샘물'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플무원 워터라인 18.9 l'는 병입에 신선캡(Fresh Guard Cap) 부착을 통해 공기 중 모든 미생물 유입을 차단했으며, 워터라인 전용 냉온수기 안에 신선지킴이(Hepa Filter)를 장착해 공기와 먼지를 무균실 수준으로 여과하고 음용 중에도 마개를 따지 않은 것과 같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공병 관리용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공병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없앴다.

일동후디스

과일 포켓 출시

파우치 팩 적용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가 파우치 팩으로 포장된 짜먹는 천연 과일 퓨레 제품인 '과일 포켓'을 출시했다.

'과일 포켓'은 과일 원료가 85% 이상 함유돼 생과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퓨레 제품으로 방부제나 인공 색소, 향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만든 안전하고 깨끗한 웰빙 제품이다.

파우치팩, 스크류캡으로 포장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와 달리 짜서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주)오뚜기

올리브유 마아가린 2종 출시

기존 제품에 비해 칼로리 절반수준

(주)오뚜기(대표이사 강신국)가 올리브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올리브유 마아가린 2종(올리브유 저지방 마아가린, 올리브유 1/2 하프 마아가린)을 출시했다.

'오뚜기 올리브유 마아가린'은 향이 진한 압착 올리브유를 첨가하고 100% 식물성 유지를 사용, 칼로

업계동정

리를 기존 마아가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신선한 올리브유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비타민 A, D3, 천연토코페롤이 풍부하다. 상온에서 보관하는 ‘올리브유 저지방 마아가린’ 과 냉장 보관하는 ‘올리브유 1/2 하프 마아가린’ 등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빵, 토스트, 볶음밥, 카레라이스, 생선구이, 제과제빵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일반 마아가린에서 저지방 마아가린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강지향적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첨가해 지방 함량과 칼로리를 일반 마아가린 제품 대비 절반으로 낮춘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프리미엄 마아가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제약

프락틀-S 출시

1회용 포장으로 휴대 간편

롯데제약(대표 조철우)은 최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락토올리고당을 주원료로 한 ‘프락틀-S’를 출시했다

‘프락틀-S’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이 확대된 후 프락토올리고당 함유 제품으로 허가받은 1호 제품으로 장내 세균 중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균을 선택적으로 증식시켜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다.

또한 이 제품은 맛이 좋아 누구나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1회용 포장으로 돼 있어 휴대가 간편하며 하루 1포만으로 충분히 장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